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박순 비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힘들지만, 의미 있는 봉사를 하고 계신 모든 봉사자님께 이렇게 짧은 글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걱정 반, 우려 반,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2024년 지금까지 17년이란 시간을 참으로 많은 환우분들과 가족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내며, 살면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배웠고, 진정한 삶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면서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그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뜻있는 의미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소중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게 봉사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봉사만 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봉사란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이곳 호스피

스 병동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게 된 가정 호스피스 봉사는 환우분에게는 병동보다 편한 집이 저에게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곳으로 병동에서의 활동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병동에서보다 더 편안하게 당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는 환우분과 보호자들을 보면서 이기적이고 부족한 저에게 그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매번 아쉬움이 남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되돌아오곤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 색깔의 향기로 피어나는 곳입니다.

생일을 맞으신 환우분을 위해 병실에 색색의 풍선으로 생일잔치 장식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환우분과 가족들이 고깔모자도 쓰고, 환우분이 드실 수는 없지만 예쁜 생일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생일 축하 노래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생일잔치를 하기도 합니다.

병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고깔모자를 쓴 생일 사진 속 잔잔한 미소를 띠고 계신 환우분을 보며 “이 사진이 마지막 생일 사진이겠구나.”, 또 다른 환우분의 꽃잎 휘날리는 나무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가족사진을 보며 “저 꼬마 손녀는 할아버지를 기억할까?”, “저 손녀가 할아버지와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담

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곁에 살아 계시면 좋을 텐데……” 생각하며 사진을 바라보던 저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져 옵니다.

우리는 모두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설렘과 두려움, 미련과 아쉬움, 아픔과 치유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내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남겨진 이들에게

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시간이 화해와 용서, 사랑과 따스함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선물을 가득 담고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오늘 만나는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분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만약 오늘이 그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면, 제가 오늘 그분들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감사함과 고마움을 알게 해 주신 주님과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